

# 十

## 韓國의 크리스마스 썰 夜話 11

— 전지 완전수집을 방해하는 환상의 썰 —

(1952년도 發行分)

이 창 성/크리스마스 썰 동호인. 수집가

### 1. 6.25동란의 발발

1949년에는 판매에 있어 적자이긴 했지만 썰이 재 발행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1950년 6월 25일, 뜻하지 않은 6.25 동란의 발발로 모든 것이 동란의 톱니바퀴 속에 휘말려 들어가고 말았으며 썰도 그 예외는 아니었으며 그후 2년간을 공백으로 지나 간 것이다.

### 2. 도안

1952년의 서울 수복 이후에 썰은 다시 발행되기 시작했다. 도안은 소녀가 부채를 든 모습인데 1949년의 도안에 비하여 크리스마스 썰 다운 도안 이었다. 썰에 부채가 등장하는 것은 매우 희귀한 것이다.

부채는 퍼면 끝이 넓어지는 까닭에 장래의 발전을 축하하는 사업개시 라든가 결혼식 선물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데에 착안하여 희망차고 건강한 앞날을 기원한다는 뜻에서 채택했는지도 모르겠다.

담청색의 바탕에 때때옷을 입은 소녀가 태극문이 있는 부채를 들고 있는 것

은 매우 특이한 도안이며 만화풍인 소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면 미소를 금치 못한다. 도안을 자세히 관찰하면 소녀의 빨간 머리띠가 보이는데 이는 부채를 들고 춤을 추는 것이 아닌가 여겨지기도 한다.



상부 오른쪽에 1952라는 연호가 있으며 아래편 오른쪽에는 흑색으로 KOREA라는 국명, 왼쪽에는 적색으로 복잡자가 표시되어 있다.

1953년의 때때옷 입은 소녀의 도안이 모체가 되었으며 썰 크기는 1949년에 비하여 대폭으로 줄인 것이 특색이다.

이 도안도 서울 시내의 중등학교 미술 선생에게 의뢰 하였다고 하나 이름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 3. 인쇄소

현재의 조선히텔 근처인 평판 인쇄소에서 인쇄 되었으며 뒷풀과 천공은 1949년과 같이 하청으로 시공 되었으며 뒷풀은 시공되어 있고 천공은 선공이 주가

되나 어떻게 된 것인지 선공과 점공이 혼합된 것이 존재한다. 인쇄소 이름은 미상임

- 4. 발행수 : 5만매
- 5. 매가 : 매당 10전
- 6. 시트 구성 : 11×13=143매

썰의 크기가 매우 적은 까닭에 인쇄소에서 전지를 8절지로 된 것에 인쇄하여 11×13=143매라는 기묘한 전지가 되고 말았으니 실물을 입수하기 전에는 143매라는 숫자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43매는 판매인의 판매 수수료가 되고 100매가 실제 매상고가 되었다.

### 7. 판매실적

1952년 서울 수복 직후라 1949년과 같이 거의 판매실적은 없었다고 하는 것이 과언이 아니었으며 판매실적을 올리지 못한 것은 1949년과 같은 사정이었다.

가장 큰 원인은 그 당시 크리스마스 카드의 발송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미국의 감리교 계통의 교회 100군데에 전지를 안내장과 함께 발송하였으나 송금되어 온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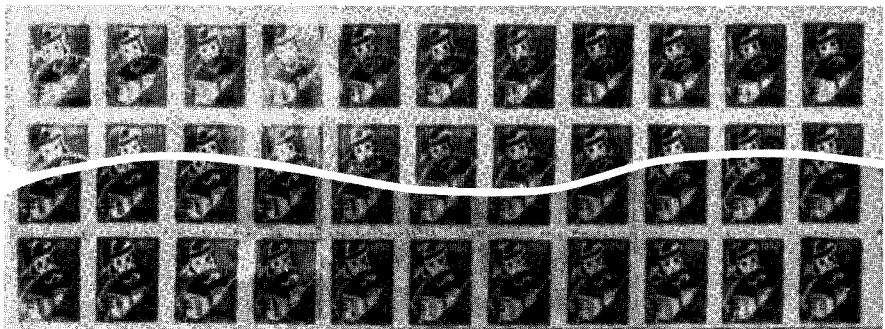
### 8. 환상의 전지 입수의 경위

143매라는 썰 구성도 기묘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발행된 썰 중 가장 고가인 점도 특색이나 전지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너무나 유명하게 된 썰이다.

1987년은 필자가 회갑을 맞은 해이며 가정사정으로 천경해운 선원연수소 소장의 육상근무를 중단하고 해상근무를 하게 된지 2년이 지난 때였다. 그해 미국 동해안의 SAVANAH라는 항구에 입항하였을 때 선식 공급업자의 소개로 APS 회원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한국 크리스마스 썰을 거의 완전 수집하고 있었으며 그 사람의 수집품 중에서 선공과 점공이 혼합이 되어 있는 전지를 보았을 때의 희열은 이루 표현할 수 없었다.

본선이 SAVANAH항에 정박중에는 거의 매일 그 APS회원 집을 방문하였고 또 본선 선장의 협조를 얻어 선상에 그 회원 부부를 초대까지 하였으나 끝내 격면에서 타협이 되지않아 포기하고 출항하였을 때의 마음 아픔은 수집가가 아니면 모르는 미묘한 감정이었다.

행운의 여신이 미소를 던져 주어서



본선이 증공의 상하이에 입항한 후 또다시 SAVANAH항에 재 입항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이다.

증공 특산의 선물도 준비하여 다시 그 APS회원 집을 찾았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눈에서 불이 날 것 같은 엄청난 가격이었으나 그때 부인의 협력까지 얻어 전지를 구입하게 되었을 때의 희열은 마치 세계를 정복한 것 같았다.

귀국후 문창모 박사가 Rotary Club의 회합차 부산 해운대 Beach Paradis Hotel에 왔을 때 그 전지를 보여주면서 입수의 경로까지 설명 하였더니 진품이라고 감정을 하여 더욱 기뻐다. 오늘날까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세계에서 유일(?)의 전지가 아닌가 하며 한국에서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백군데의 교회에 보낸 크리스마스 썸이 배달이 지연되어 목적이인 교회에 도착되었을 때는 다음 해의 봄이 되었고, 그후 이러한 전지중 하나가 우표상에 인수되었으며 그것을 SAVANAH의 APS회원이 구입하게 된 것 이라고 한다.

1932년부터 현재까지의 크리스마스 썸을 전지로서 수집하고 있는 사람도 1952년의 전지구입에 있어서만은 그 어려움으로 좌절하고 마는 것이다.

이 전지의 입수는 나의 회갑에 있어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

### 9. 발행소

가장 공신력이 있는 단체를 만든다는 것을 목표로하여 기독교를 신봉하는 의사들이 모여 “한국기독교의사회”라는 명칭으로 썸을 발행하기로 했으나 이것도 결

국 실패에 그쳤으며 개인 발행이 되고 말았다.

전지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것도 이와 같은 연유에 기인하고 있다.

### 10. 각종자료

구 분	내 용	비 고
발행년도	1952년	
도안내용	부채든 소녀	
도안자	미상	
인 면	22×25	
천 공	점공 11	점공 9× 선공 12 ½ 점공 11 ½, 선공 12 ½, 도 있음
쇄 색	4도	
판 식	석판	
전지구성	11×13=143	4방 변지있음
판매가격	매당 10전	
BOOKLET	없음	
엽 서	없음	
인쇄소	미상	

### 11. 참고문헌

- 1) COMET지 NO. 63 1985. 8. 10 발행
- 2) GREEN WORLD CATALOGUE, THE CHRISTMAS SEAL AND CHARITY STAMP SOCIETY BY HENRY IRWIN
- 3) 원색 한국우표도감-1991년판 우문관
- 4) 대한결핵협회 20년사-대한결핵협회

†